

전북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24시간 가동

폭염·집중호우 대비 비상체계 구축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2,035억 투입 취약시설 1,070곳 사전점검 완료 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 지원 추진

전북도는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키 위해 2026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기간(6.15~10.15) 동안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 체제로 운영

한다.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축산분야 등 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기상 특보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 피해 규모 파악부터 응급 복구까지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상이변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과 노지시설작물, 인삼, 축사 등의 폭염 예방 등 8개 사업에 총 2,03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신규 도입된 시설하우스 폭염 예방 사업은 고온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도는 취약 지역 농업시설물 1,07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완을 마쳤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김제, 부안 등 논농 주산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정비와 양수기 가동 실태(14개 시군, 2,128대)를 정밀 점검했다. 또 도내 저수지 2,153개소 및 저지대 노후 축사 등 재해 취약 축산시설 20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재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조사를 토대로 대파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손해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

해 보험금 조기 지급을 통한 경영 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731억원이 지원된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시 행동 요령 준수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1차 입법평가위원회서 심의 평가대상 조례 20건 의결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등을 위한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상위법과의 법정합성·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더 나은 조례, 더 좋은 조례로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면에서 입법평가는 도민에게 수익적 혜택을 부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및 위촉위원인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전북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입법평가 조례 선정 사유를 청구하고, 입법평가의 본래 취지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내었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20건의 조례를 평가대상 조례로 심의·의결했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안호영 비전, 2기 도정서 함께 실현"

"정책연대 여전히 유효" 밝혀 반도체·재생에너지 공약 계승 "전북 대도약 함께 완성하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20일 "안호영 의원의 정책 연대는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안호영 의원이 제시한 6개항의 주요 정책을 김관영 2기 도정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안호영의 꿈, 김관영 2기에서 이어집니다-전북 미래 공동 구상'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 위에서 전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안호영 의원은 당초 저와 정책 연대를 선언하고 전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로 뜻을 모아왔지만, 갑작스러운 제명과 불공정 경선 강행으로 상황이 크게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선 직전 발생한 식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중앙당은 충분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안 의원은 편파 감찰과 이중잣대, 불공정 경선을 문제 제기하며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이후에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요구하며 12일 동안 단식투쟁을 이어갔다"며 "안 의원이 최근 밝힌 '도지사 선거는 오롯이 도민의 선택이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안 의원이 제시했던 주요 정책과 비전을 김관영 2기 도정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 및 새만금 RE100 기반 반도체·AI 산업 전략 ▲햇빛연금마을 1000개 조성과 분산에너지 특구 중심의



<사진=김관영 후보 측>

전북형 재생에너지 순환체계 ▲KAIST 남원 AI 공공로봇캠퍼스 조성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전북 광역급행철도(JBX) 구축 ▲세종·충청권과 연계한 중부권 시대 발전 전략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안호영 의원의 꿈은 멈추

지 않을 것이며 김관영 2기에서 함께 이룰 것"이라며 "도민의 선택으로 당당하게 승리해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이제 명 정부 및 안호영 의원과 함께 전북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 공약

경로당 부식비비대면 진료 확대 도농복합형 실버타운 조성 추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0일 "경로당 부식비(반찬 구입비) 지원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최대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확대하고, 틀니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화상으로 지원하는 '온(ON)-경로 플랫폼'을 구축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정책으로는 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농촌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도농복합형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의료·돌봄·문화·여가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형 주거 단지를 만들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후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시설 보강 등 안전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노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플란트 지원을 현행 최대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확대하고, 틀니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처방 서비스를 화상으로 지원하는 '온(ON)-경로 플랫폼'을 구축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정책으로는 도시의 생활 인프라와 농촌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도농복합형 실버타운을 조성한다. 의료·돌봄·문화·여가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형 주거 단지를 만들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고, 노후가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데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계통 접속 선착순 원칙을 유지하되, 일정 요건

을 충족한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설비용량 1MW 이하 사업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주민참여 사업 등이다. 이

안호영 지지모임·범도민회의, 김관영 지지 선언

"당 사당화·불공정 경선 규탄" 안호영은 민주당 선대위 참여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지사 경선후보 지지모임인 '호영호제'와 '정청태사당화저지 범 도민대책회의'는 20일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호서 '호영호제'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태 대표 체제의 '사당화'와 불공정 경선 과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 김관영 후보를 공식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지난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호영의원을 지지했

다. 민주당 지도부의 불공정 경선 의혹과 안호영 의원의 단식투쟁 사건을 거치면서 정청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김호서 상임대표와 함께 하는 회원들은 9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이번 도지사 경선 과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과 상식이 무참히 짓밟힌 현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태 대표는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김관영) 후보를 (현금살포 보도이후)12시간 만에 제명했고, 안 의원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긴박한 상황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는 전북 정치인을 향한 모멸이자 도민에 대한 정치적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호영 후보가 경선에서 49.5%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중앙당의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은 전북도민의 기개이자 자존심의 증거"라면서 "이 민심 안에는 김관영 후보에게 보내는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도 녹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북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김관영의 승리를 위해 작은 밑알이 되고자 한다"며 "오직 전북의 자존심과 김관영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고 김관영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호영호제'의 선택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발의 분산에너지법 상임위 통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송·배전설비 이용에 있어 '차별 없는 이용' 원칙과 선착순 접속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간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며 이같은 법안의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로 인해 접속 대기가 수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구조적 병목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건물 화재예방 안내

콘센트에 다양한 플러그 사용 금지

온열기구 미사용시 전원 OFF

전자기기에 물 닿지 않게 하기

콘센트 옆 화기배치 금지

전북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효성 입증

전년 대비 사고 57%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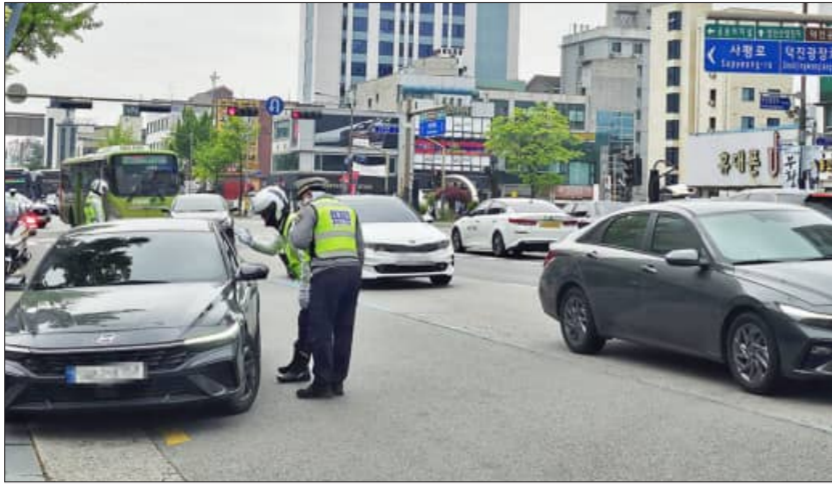
전북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4주간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위반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4주간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해 총 229건을 적발했다.

적극 전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했던 우회전 교통사고에 비해 57.1%(-4건) 감소했다.

특히 우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안전 활동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언론인턴부, 단속 동행 취재, 자체 영상 제작 및 홍보 물품 배포 등 다각



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이끌어냈다.

이번 중간 점검에서 보인 긍정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집중단속 기간이 종

료되는 6월19일까지 교통안전 활동을 공백 없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혼선 요인과 보행자위험 요소 의견을 교통환경 리바이벌 프로젝트를 통해 실효성 있

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운전 문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전북경찰은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현장 안착 위한 전북경찰청 교통안전 특별 집중단속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립극단 '마당을 나온 암탉' 낭독극

'문화가 있는 날' 무료 공연 백선일 미술사 매직쇼 마련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27일 '5월 문화가 있는 날' 덕진예술회관에서 낭독극 '책 읽어주는 남녀 마당을 나온 암탉'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가정의 달' 어린이 등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립극단은 이번 공연에서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마당을 나온 암탉'을 낭독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특히 공연에서는 암탉 '익씩'과 청동오리 '조록'의 꿈과 자유를 향한 용감한 도전을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낭독과 연기로 만나볼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또 특별공연으로 백선일 미술사가 참여한 LED 퍼포먼스를 활용한 참여형 매직쇼도 함께 선보인다.

이와 관련 덕진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립극단은 11월까지 전주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 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입장권은 나무결쳐 누리집(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약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선거 전반 치안 상황 유지 총괄 선거당일 '갑호 비상근무' 전환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오는 6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20일 선거경비통합 상황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 등 총 16개소에 설치됐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 거리유세와 토론회에 대한 현장 안전 활동을 비롯해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선거 전반의 안전 활동 지원과 치안 상황 유지를 총괄하게 된다.

특히 전북경찰은 투표 당일인 다음 달 3일 투표 시작부터 개표가 완전히 종료

될 때까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한편 경찰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경연 넘어 축제로!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대회 대한민국 최고 예인 '진검승부' 학술포럼·전야제·공연까지

전주시가 지난 9일 공도대회를 시작으로 힘찬 시위를 당긴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본격적인 국악의 성찬을 차린다. 2026 전주대사습놀이는 전주 전역 공연 등 학술 포럼부터 시민 위한 다채로운 기획 공연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



화전당 학술포럼은 '공동체가 만든 무형 문화유산 구축의 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전통예술 가치와 지속가능한 계승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관소리 명창부와 농악부, 기악부, 무용부 등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예인 자리를 두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국악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5대 기획 공연이 운영된다.

아울러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

야제'(5월 23일) △여대 장원 수상자들의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나는 '장원자의 밤-水簾穿石(수직천석)'(5월 24일)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소박한 일상에 담긴 웃음과 애환을 되짚어 보는 '70년대 해학창극展'(5월 29일) △국악의 무한한 변신을 보여줄 퓨전 국악 무대 '창작의 밤'(5월 30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5일 펼쳐지는 '팔도 한량 한마당 잔치'는 국악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일상의 문화임을 증명하는 자리로 채워진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정책 발굴에 '구슬땀'

시, 분과별 간담회 통해 청년들과 의견교류

전주시 청년정책제안기구인 청년희망단은 전주시와 함께 맞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희망단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전주시 대표 청년참여기구다.

매월 분과회의 등 분과별 활동을 이어오며 최근 청년 정책 제안 초안을 완성한 후 현재 최종본 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청년희망단의 정책 제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교육 및 시정 현장 방문 교육을 추진했다. 또 제안된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분과별로 멘토를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특히 시는 지난 18일부터는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분과별 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10기 청년희망단은 지난 1월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청년의 날을 비롯한 다양한 시정 참여 활동을 추진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AI·가상융합기술 활용 전북 산업 AX 모델 발굴 지원

공공라이프, 로봇·제조혁신, 전북특화 등 과제 선정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북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참여기업 모집한다.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는 '산업 AI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가상융합기술과 AI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AX 사업화 모델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프로젝트는 도내 기업 수요를 토대로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지원 규모는 총 800만 원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공동 프로젝트 그룹 활동 지원 △지자체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전북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옛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제작 시설·장비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사업화 가능성과 산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국비사업 및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도내 가상융합산업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형 AX 산업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자우편(sky4377@jic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지정폐기물 '자율점검' 추진

지정폐기물 보관·배출 시 환경오염 선제적 예방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 위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전북지방환경청 김호은 청장은 20일 "지정폐기물 보관·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선

제적 예방에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서류 변경확인 사항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게시 상태 △폐기물 인계 내역의 올바른 시스템 입력 요건 등이다.

관련해 김 청장은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해당 법령 내용 담은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

아울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

지방환경청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위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도 계획 중이다.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에는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심 있는 사업장은 오는 6월 5일까지 전자우편(limgs082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 송천3동지사협, 배냇저고리 214벌 전달

전주시 송천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배냇저고리 214벌을 관내 출산 산모들에게 전달한다.

송천3동사회보장협의체 배냇저고리 전달은 새생명 탄생 축하와 함께 아이들의 부모 양육을 위해 마련됐다.

배냇저고리는 (유)토그니(대표 이용준)의 후원에 따른 것으로 송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정성껏 포장했다. 후원에 참여한 이용준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국가암관리사업 공무원 역량 강화

도내 암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폐암 예방·조기검진 교육

전북대병원은 20일 '2026년도 국가암관리사업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전북도 시·군 보건소 국가암관리사업 담당 공무원 23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전북도와 전북지역암센터(소장

김명기)가 주최·주관했다.

이날 교육은 지역사회 질병 부담이 가장 큰 암종인 '폐암'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폐암은 전북 지역 암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해 폐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공공 보건 차원 예방 및 조기 검진 홍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교육에서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한진 교수의 특강 "폐암 주요 위험 요인과 최신 치료 경향" 강좌가 이어지며 일선 공무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제25회 대한민국안전대상' 모집

대통령상 등 총 75개 시상

전주덕진소방서가 '제25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대한민국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안전분야 최고 권위 있는 시상이다.

'대한민국안전대상'은 민간 자율 중심 안전문화 정착 환경 조성·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그리고 안전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상은 △우수기업상 △우수관리상 △공로상 △공모상 등 4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총 75개 규모로 진행되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먼저 우수기업상은 서비스·공공서비스·에너지·제조·운수·창고·통신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관리상은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과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을 대상으로 점수를 진행한다.

또 공모상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단체·우수제품 분야로 운영되며 공모상은 스포츠·카드뉴스·학술 논문 분야로 진행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며 우수기업상과 공로상, 공모상 일부 분야는 한국안전인증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관리상과 학술논문 분야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우수기업상과 우수관리상 가운데 청장상 이상 수상기관에는 소방시설 종합점검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기관은 최대 3년간 종합점검이 면제된다.

심사는 최근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 발생 여부와 안전관리 실적, 안전문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면세유 관리농협 업무교육'

유가연동보조금 등 실무지식 및 법적 준수사항 중심 진행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20일 전북권역 면세유 관리농협 및 시군지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면세유 관리농협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유가연동보조금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석유 품질 및 유통질서관리 △면세유 공급 실무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지식과 법적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유가연동보조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중동 전정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9월까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가동에 사용하는 경유와 3월, 4월, 9월에 원예시설 난방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중유·부생연료유·LPG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0월 31일 까지이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지원대상인 트랙터·경운기·콤바인·농업용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경우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지역상용차 부품업체 공동위기' 지원

친환경 상용차 부품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공동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회복 솔루션을 지원할 수요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상용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이 친환경차 전환 및 미래차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상용차 부품 고도화와

사업다각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경기지표를 삼시 모니터링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집 과정은 '미래차 공급망 재편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친환경 상용차 부품 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공동회복 지원'이며, 수요기업 신청 대상은 상용차 모기업의 1~3차 협력사로서, 내연기관 중심

에서 친환경차 분야로 전환하거나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군산 2국가산업단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군산 친환경자동차용부품R&D센터,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등 자동차 부품업 밀집지역으로 신청하는 수요기업이 지원대상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전북위키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시제품 고도화 공동 기술지도 및 기술로드맵 수립 △친환경 상용차 시제품 고도화 및 품질 공동 개

선 등으로 구성되며, 공동회복 솔루션을 제공할 선정된 수행기관과 협의해 지원범위를 결정하면 된다.

수요기업 5개사 이상에 지원할 지원규모는 총 6천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수요기업과 수행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과 공동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4월 전북수출, 전년동월대비 13.5% ↑

금은·백금, 성장세 견인 (\$4,026만, 30.6%) 합성수지(\$3,860만, 3.9%)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5대 품목은 전체 수출 40.5%를 차지했다.

특히 금은및백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200% 증가한 8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월 전북 전체 수출 증가세에 힘을 실었다.

해당 품목의 1, 2위 수출국은 태국과 홍콩으로 전북 금은및백금 수출의 80.0%를 차지했다.

이는 글로벌 전자기기 및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거점인 태국과 글로벌 중계무역 허브인 홍콩으로 폐자원에서 회수한 전락 금속 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원 리사이클링 기반 순환경제와 전략 금속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금은및백금 수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상의 '기업 민원 해소의 날' 개최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회원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 민원 해소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는 전주상공회의소가 운영중인 7개 분야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업들이 경영 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고충을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명쾌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기업 민원 해소의 날'에는 최근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법무 및 노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 참가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는 이형구 법무사와 신용순 노무사가 상담에 나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나 노무관리, 근로기준법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상담에 참여한 회원기업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법무·노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고충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진청, 산림청·지자체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실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내달 말일까지 운영

농촌진흥청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경·산림지(농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특·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돌발해충 월동난 부화 상황과 기상여건 등을 반영해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방제할 예정이다.

돌발해충은 이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토착 해충이나 새로 유입된 외래해충이 갑작스럽게 대량 발생해 농작물이나 산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을 말한다.

대표적인 돌발해충으로는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가 있다.

돌발해충은 농경지 및 주변 산림 등에서 넓게 서식하기 때문에 농경지와 산림지를 구분해 방제하면 방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으로 옮겨간 뒤 다시 돌아오므로 농림지 공동방제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돌발해충 월동난 약 50%가 부화하는 시기를 예측해 효율적인 약충 방제 시기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미국선녀벌레 월동난은 지난해보다 1~7일, 갈색날개매미충은 2~7일 빠른 것으로 예측되며, 꽃매미의 경우 중부 지역을 제외하고 3~8일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그동안 공동방제가 어려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에 대해 생물적 방제 효과가 우수한 천적을 도입해 정착, 확산시

켰다. 최근에는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우수 토착 천적을 탐색해 지역별로 생물적 방제 효과를 조사 연구 중이다.

한편 2015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돌발해충 예찰 방제 대책 협의회'를 운영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예찰,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권철희 국장은 "관계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돌발해충을 포함한 주요 해충의 예찰과 방제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추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농지시장 안정에 이바지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3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

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공사는 지난 4월 지침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과수원이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읍면계 확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공사에 농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농지 내 놓기' 서비스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 (유)아이원에 표창 전수

전북지방조달청은 20일 지역 조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김제시 소재 유한회사 아이원에 조달청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표창은 공공조달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

유한회사 아이원은 가구 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며 공공조달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고객 중심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유한회사 아이원은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지역 우수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장년 부부 건강관리, 함께 나서야"

KH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전북) 정진숙 과장은 "중장년 부부의 건강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함께 점검해야 하는 공평의 생활 과제"라며 "갱년기 증상이나 배뇨 변화 등 중년 이후의 신체 변화를 무작정 참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후 건강수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의 시기다. 안면홍조, 발한, 수면장애, 감정 기복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주

의해야 할 부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골밀도 저하와 대사 변화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건강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골다공증 중 여성 비율은 약 94%로, 남성 대비 월등히 높다. 또 50대부터 급격히 환자가 증가해 골다공증이 폐경 이후 여성에게 집중되는 대표 질환임을 보여준다.

남성도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전립선 질환을 함께 살펴야 한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 폐경처럼 어느 시점에 급

격히 나타나기보다,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진행된다. 이로 인해 피로감,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립선 건강도 중장년 남성이 빼놓지 않아야 할 관리 항목이다.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고, 전립선 내부를 지나는 요도가 눌리면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해 60대에는 60~70%,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남성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중장년 건강관리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의 수면장애, 감정 기복, 피로감, 배뇨 습관 변화, 통증 호소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다.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검진을 권하는 것만으로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활습관 관리도 부부가 함께할 때 효과가 크다. 규칙적인 걷기와 근력운동은 여성의 골밀도 유지와 남성의 근육량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짜고 기름진 음식, 과음, 흡연은 혈관 건강과 전립선·대사 건강에 모두 불리하므로 함께 줄이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 적정 체중 유지, 정기적인 혈당·혈당·지질 수치 확인도 중장년 부부가 함께 실천해야 할 기본 건강관리 항목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JB안전체험코너'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 본점 1층 로비에서 'JB안전체험 코너'를 운영한다.

안전체험코너에서는 임직원들은 물론 일반인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연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부에서는 본점 경비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119안전체험관에서 사전 집체교육을 마쳤으며,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3세트와 유아 및 어린이 마네킹도 준비해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배너들을 체험장 곳곳에 설치해 평소 소홀하기 쉬운 식품안전, 교통안전, 화재예방 등 제반 생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체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심폐소생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동영상 자료도 상영하며, 참여 고객들에게는 은행에서 준비한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응급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 인문사회 기초연구소 사업 선정

내달 연구원 출범 AI 기반 호남학 거점 구축 및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대형 국제 사업인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5년간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단 3개 대학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대는 연간 4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역거점국립대의 인문사회 기초학문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정주형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달 '전북인문사회연구원'을 공식 출범하고, 학내 인문사회 분야 부설연구소를 핵심 거점 중심으로 통합·재편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산하에 '호남학연구소'와 'AI미래사회통합연구소' 등 두 개의 중점 연구소를 두고 융복합 연구를 본격화한다.

호남학연구소는 마한, 동학, 판소리 등 지역 인문 자산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AI 기반 고문헌 번역 플랫폼

를 개발해 한국학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AI미래사회통합연구소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대응 전략을 진단하고,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사회통합 모델을 설계·실증한다.

지역 정주형 연구 인력 양성도 핵심 축이다. 전북대는 우수한 박사급 학술 연구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와 주거 지원, 독립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펠로우십을 제공한다.

이울러 학부 연구학점제(U-REACH)와 석·박사 연계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문후속세대가 지역에 정착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인재 성장 사다리를 완성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글로벌대학30에 이어 기초학문 육성과 연구 경쟁력 강화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전북대를 인문사회 융복합 연구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윤명숙 대외취임부 총장은 "기초학문의 위기 속에서 전북대만의 차별화된 학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전국대회서 기량 입증

금 3개은 2개 등 쾌거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17~19일)'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63kg이하급 서수빈 선수는 준결승에서 부산북구청 차아리를 모두걸기 절반과 되치기 절반으로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으며, 결승에서 순천시청 신채원을 상대로 조르기 한판승으로 잡아 금메달을 획득했다.

48kg이하급 박서윤 선수는 준결승에서 대구광역시청 이세영을 상대로 발뒤축걸기 유효승 및 되치기 절반승으로 결승에 올라 제주도청 이경하를 상대로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78kg이하급 김아현 선수도 결승에서 충북도청 김지영을 상대로 모두걸기 유효승과 굳히기 절반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57kg 이하급 이재란 선수는 준결승에서 경남도청 강지현을 상대로 발목받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출전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다.

이지연 감독은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다가오는 전국대회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성과는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의 저력을 전국에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에 깊이 감사드리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시, 춘향배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 개최

23~25일까지... 500여 명 선수단 참가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제5회 춘향배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가 주최, 남원시게이트볼협회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4개 팀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64개 팀,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24일 예선리그전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각 파트별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이어 25일에는 결선리그를 거쳐 선발된 최종 1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툰다.

게이트볼은 전략과 협동이 중요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동호인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생각하는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는 매년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스



<사진=남원시>

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부안군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 공연

부안군은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가 2026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공연 '나의 삶던 고향은 꽃피는 부안'을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이 협력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유수영과 콘서트 가이드 변자연이 함께하며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통예술원 타무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Mozart :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1st Allegro'(협연 박은수), '도라지', '아리랑 랩소디', '고향의 봄', '아름다운 나라' 등 총 7개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부안(아리울 오케스트라) 출신인 박은수가 친숙한 클래식 선율을 선보이고 우리 민요 및 가곡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안예술회관 관계자는 "군민들이 음악을 통해 고향의 정취와 따뜻한 감동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



<사진=부안군>

공연 관련 문의는 부안예술회관으로 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순창군청 역도팀 선전... 황수민 선수 은메달 획득

순창군청 역도팀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충남 서천군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황수민 선수(95kg급)는 인상부문에서 156kg을 들어 올려 은메달을 획득하며 순창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한편, 장서진 선수(75kg급)와 전병현 선수(110kg급)은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혼을 보여주며 팀의 사기를 북돋웠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은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역도팀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정읍 디에스판넬, 천호성 후보 지지

"정책과 실천력을 믿는다"

정읍 지역 건축자재 제조기업인 ㈜디에스판넬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디에스판넬(대표이사 이석)은 지난 19일 지지 선언문을 내고 천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한편, 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이남호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남호 후보 측이 언론인 금품 회유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본질적인 해명 없이 실무자의 개인적 거래로 치부하며 전북도민을 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호성 후보에 대해서는 "35년 경력의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을 끊임없이 연구해 온 점을 신뢰한다"며 "교육청의 협력을 강조하며 제안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공약 등 실질적인 지방시대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에스판넬 이석 대표는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하게 공약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 만큼 전북 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천 후보의 정책과 실천력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3개 특성화고와 정주형 미래 인재 양성 업무협약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20일 관내 3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일자리지원센터와 글로벌학산고, 제일고, 칠보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형 미래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여 졸업 후에도 고향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특란한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은 앞으로 취업 지원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우수 기업 취업 연계를 비롯해 현장 중심의 직무 교육, 진로 탐색 과정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과 학교 사이의 소통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생생한 구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무 위주의 훈련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지역 내 채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인구 감소 추세를 막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10월 중 하반기 사업 신청 시작

익산시가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상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209농가, 농지 54ha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고춧대와 깻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덜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24년부터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불법소각 예방뿐만 아니라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순환 농업 실천과 토양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오는 11~12월 하반기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신청은 10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농업 확산을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22일부터 교육생 선착순 모집

군산시가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2026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전북시민대학 누리집(ims.jibiles.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6월 15일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군산지역 4개 대학 캠퍼스와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해 기능기초, 리더십, K-콘텐츠, 드론·AI, 패션, 고령친화식품 등 실생활과 취·창업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교육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발맞춰 추진하는 평생교육 정책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속진 복지교육장은 "전북시민대학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역량 강화와 더불어 취업 연계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식 기자

익산시, 바이오산업 육성 확대

고용혁신 프로젝트 추진... 고용·복지 등 4개 분야 사업 추진

익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 환경 혁신에 나선다.

익산시는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읍시와 함께 'BIONE(바이오) 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내 바이오산업 특화 지역인 전주(연구)·익산(생산)·정읍(실증)의 기능을 연계해 바이오산업 통합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익산시는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과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복지 향상을

위해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기업 성장 환류형 상생일자리 지원 △숨은시간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기업 지원) △숨은시간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근로자 지원) △통근생활권 근로자 일자리 개선 지원으로 구성됐다.

'기업 성장 환류형 상생일자리 지원'은 전주(연구)·익산(생산)·정읍(실증) 등 2개 이상의 지역 기능을 연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이전 또는 추가 설립하는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선정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과 시설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4,000만~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숨은시간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은 기업과 근로자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기업에는 인사·노무 컨설팅과 디지털 시스템 도입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전용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통근생활권 근로자 일자리 개선 지원'은 바이오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비 △근속지원금 △복지패키지 지원으로 운영된다.

먼저 원거리 통근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매월 최대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연구직 1년 이상, 기타 직무 3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근속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별 세부 공고문과 신청 양식은 익산시청 누리집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및 전북산학융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도심권 관통 터널 '연말 개통'

산북동~나운동 연결 공정률 85% '순항'



4도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산북중방면

<사진=군산시>

군산시는 산북동 산북중학교와 나운동 부곡사거리를 잇는 '4도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공사'가 계획공정률에 따라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공사비 280억 원을 들여 도로연장 1km를 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터널 내에는 2차로와 시민 편의를 위한 인도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그간 터널 굴착 구조물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기 및 소방 설비 등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5%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도심권 산을 관통하는

대 상습 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참고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올해 12월 개통을 위해 마지막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자율주행 버스 7월 시범운행

전기차 마릉e버스 시범 기간 무상으로 탑승

익산 시내 도로 위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는 모습을 곧 볼 수 있게 된다.

익산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마릉e버스'의 시범운행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익산시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기본설계와 플랫폼 구축 용

역, 차량 제작, 실증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으며 2028년까지 2개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우선 시범운행은 시민과 청년들의 이동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1개 노선에서 이뤄진다. 평화동 익산외고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작되는 노선은 익산역과 신동을 지나 원광대학교에 다다른 뒤 회차해 다시 역순으로 터미널로 향한다.

마릉e버스는 교통상황을 스스로 감지하며, 시속 40~50km로 운행될 예정이다. 도로 위 운행뿐 아니라 승강장에 정차해 개문하고 승차차 상황을 확인해, 안전하게 문을 닫는 과정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문 인력이

탑승해 예기치 못한 도로 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무상으로 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을 보조하는 협력형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신호등 잔여 시간, 도로 돌발 상황 등 교통정보를 차량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자율주행 차량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영철 익산시 건설국장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첨단 자율주행 기술의 결실이 마릉e버스를 통해 드디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서비스 개시 전까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로 위 안전 검증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유가 지원금 현장 대응 체계 강화

'찾아가는 신청' 제도 적극 운영 당부

정읍시가 소득 하위 70% 시민 7만 4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현장 접수를 지난 18일 시작하고 신속한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수성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 신청 초기 창구 혼잡 상황을 살피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합동 점검은 시민들의 대기 현황과 카드 발급 절차, 민원 안내 체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와 유 권한대행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도 무리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서 1차 지급 당시 접수자 이동 경로를 정비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혼

잡을 줄인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2차 기간에도 각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민원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시민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 전화 상담실을 함께 가동하고 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차질 없이 전달돼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빠른 민원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나선다”

‘월세 지원사업’ 접수

군산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지속사업으로 전환돼 지난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

만 원 이하야 한다.

1차와 2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총 지원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으며, 선정 시 5월부터 지급되며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여름철 재난 대비·선거 업무 점검

정읍시가 20일 23개 읍·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소통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대비와 여름철 재난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시청 재난안전과 소속 직원들과 산림복지과의 부서별 보고로 시작했다. 해당 부서들은 폭염, 집중호우, 산사태 등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해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읍·면·동장들은 그동안의 생활 민원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포함해 모범이 되는 우수 사례, 행정 업무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할 여러 의견을 나눴다.

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면한 주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 협조, 농지 전수 조사,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추진 등을 강조했다. 선거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도 핵심 화두였다. 시는 특별 감찰 기간에 소속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굴러가도록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읍·면·동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작은 생활 민원 하나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재난 대응을 비롯한 선거 업무 등 당면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 불편 최소화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군산시는 20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풍수해와 지진·지진해일, 다중이용시설 화재, 해양사고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대비 훈련이다. 군산시는 바다와 인접해 있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집중호우와 지진·지진해일로 인한 근대역사박물관 침수 및 화재, 해양사고에 따른 유류 유출 등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해 실전형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군산시청 재난종합상황실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재난현장에서 동시에 훈련을 실시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상황실과 현장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점검하고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익산시가 어린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0일 지역 어린이집과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70여 명씩 3회로 나눠 진행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응급처치 훈련에 중점을 뒀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시책을 지속 추진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고창, 재난대응 역량 강화 2(題)

김제시 “안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

김제시는 20일 금산면 금평저수지 일원에서 '202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3년 6월 27일~7월 27일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김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으로 김제시재난대책본부와 김제시통합지원본부부가 공동한 실제 현장훈련이다. 김제소방서, 김제경찰서, 제8098부대 3세대 등 19여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훈련은 제11호 태풍 '한파'가 북상했음을 가정한 뒤, 사전 예찰활동, 시설물 점검 등 1단계 초기대응부터 2단계 비상대응 금평저수지 제방 붕괴 및 크고 작은 산사태 등으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3단계 이재민 구호활동, 시설물복구, 환경정비로 수습복구한다는 재난 상황을 설정한 뒤,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

“안전한 고창 만들기 최선 다 할 것”

고창군이 대형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해 20일 유관기관과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고창군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육군 제8098부대 2세대, 한국전력공사, 고창군 자율방재단, 고창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 고창지구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최근 빈발하는 지진 발생 상황을 시작으로 건물의 연쇄 붕괴와 대형 화재, 특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배터리 열폭주)'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토사 유출'까지 걸친 최악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훈련은 고창 지역 남동쪽 3.2km 지점 내륙에서 규모 6.7의 강진 발생을 가정해 시작됐다.

지진 발생에 따른 신속한 상황 전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건물 붕괴에 따른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질식소화포 및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한 배터리 열폭주 진압, 여진으로 인한 인근 야산 산사태 발생에 따른 주민 대피 등 복구 순으로 긴박하게 이어졌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토론훈련)와 현장지휘소(현장훈련)를 실시간으로 연결,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고창군민들로 구성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에 동참해 주민 대피 동선을 직접 점검하고 평가표를 작성하는 등 군민이 주도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고창군수 권한대행 김영식 부군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주민숙원사업 준공 가시화

주민 편의 증진 기대

김제시 건설과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활성화사업이 준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취합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시는 현재까지 김산동 원순동마을 배수개선공사 준공을 시작으로 교월동 냉정마을 옹벽설치공사까지 총 163건의 공사의 준공을 마쳤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남은 20여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공을 서두르고자 한다.

현재 사업의 공정률은 86% 순

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며 지역 내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된 농로와 마을안길, 용·배수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정비돼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와 원활한 용·배수 체계 구축 및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찬 건설과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아산면 지사협 홀로 어른신 생신떡케이크 전달

고창군 아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허영삼, 공공위원장 정재택)가 지난 19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92세 생신을 축하하는 떡케이크를 전달했다.

이날 매년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고창 선운산푸른떡에서 후원한 떡케이크와 함께 아산면에서 마련한 생필품도 함께 전해졌다.

대기마을 이장과 마을 주민들도 자리에 함께해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했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이 생신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백산늪두물꽃사회적협동조합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공모 선정

부안군 백산면 백산늪두물꽃 사회적 협동조합(대표 박진호)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은 백산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 40명을 선정해 자택까지 월 4회 정기적인 밀착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호 대표는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방문과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취약계층을 돌보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해 농촌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9월까지 의료기관 연계 신속 대응 및 관리

부안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

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온열질환에는 열부종,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엔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며(규칙적 수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고(체온 낮추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휴식) △ 매일 폭염특보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어

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자들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행동 등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홍보에 더욱 힘쓰고, 주민들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식 개최

작목별 재배기술 등 농촌 정착 교육 마무리

김제시는 지난 19일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귀농·귀촌 기본교육 교육생 35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6회 80시간

과정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사업계획서 작성법, 마케팅, 현장체험 등 실질적으로 귀농 준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수료식은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시작으로, 축하, 수료증 수여,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본교육 수강생 47명 중 35명(이수율 74%)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교육을 마친 한 교육생은 “현장 중심 교육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

는 계기가 됐으며, 실제 농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촌 생활과 영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치료 ‘호응’

신체재활·인지교육 등... 사회복지 연계 확대 추진

고창군보건소가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가정방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전문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로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재활 집중관리로 대상자와 보호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가운데 상반기 운영을 마무리 했다.

특히 재활에 필요한 주거 환경의 상태도 꼼꼼히 살피며 사회복지와 연계해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마무리 했다.

특히 재활에 필요한 주거 환경의 상태도 꼼꼼히 살피며 사회복지와 연계해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마무리 했다.

특히 재활에 필요한 주거 환경의 상태도 꼼꼼히 살피며 사회복지와 연계해 더욱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양세훈 박사, ESG경영 특강

지역 공공기관 혁신 모색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GFPI미래전략연구소(센터장 양세훈)가 제16회 바이오 지식 포럼의 연사로 초청받아 지역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연계방안 특강을 했다.

포럼은 지난 19일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넘는 공무원, 기업,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ESG를 경영 전반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실천적 해법을 제시했다.

강연에서는 ESG의 개념과 글로벌 동향, 그리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관계를 짚고, 이를 지방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 조직 운영에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성과관리(BSC)에 ESG 요소

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2025년 말 한국ESG학회에서 지방 공공기관 ESG 대상(사회 부문)을 수여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실천 사례로 ESG 접근을 쉽게 이해시켰다.

양세훈 센터장은 “지역 공공기관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경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이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ESG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 행정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구원의 사례가 전국 지방공공기관에 널리 퍼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썬)국도특장, AI 기반 첨단산업 주관 선정

특장산업 경쟁력 강화

김제시 소재 특장기업인 (썬)국도특장이 산업부 공모사업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이룰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며 김제 특장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인공 지능(AI)과 로봇·특장차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AI’를 현장에 투입해 AI분석 기반 다기능 로봇 통합형 특장차 기술과 하수관로 내부 탐지·준설 등 다기능 로봇, 지능형 특수목적 모빌리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46억원에 포함된 총사업비 약 8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썬소사업은 (썬)국도특장을 필두로 (썬)엔믹스 등 김제시 소재 기업과 전북도내 오디텍, (썬)포스텍, 경북도

및 광주시 소재 기업 등 총 16개 기업·기관·대학으로 구성했으며 특장차 기반 통합 플랫폼, 소형 주행 모빌리티, AI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지역별 산업적 강점을 결합해 초광역 첨단산업 기술개발을 이룰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하수관거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된 기술을 현장 실증과 실환경에 적용하고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며, 첨단 특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침수 대응능력 및 작업 현장의 안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특수목적 모빌리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데이터 기반 예방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진서면, 농촌일손돕기 실시

석포리 용동마을 농가 방문

부안군 진서면(면장 김연태)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리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김연태 면장을 비롯한 진서면사무소 직원 9명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포리 용동마을 다문화 농가에서 마늘종 재배 작업을 함께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었다.

마늘은 5월 중순부터 구(마늘 알)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마늘의 줄기

인 마늘종이 길게 올라온다.

이 시기에 마늘종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땅속 마늘로 가는 영양분이 줄어들어 수확량이 평균 15%가량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마늘종을 신속히 제거해 추후 마늘의 수확량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한 농작업이다.

김연태 진서면장은 “농가의 바쁜 시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

김제시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지난 1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55명을 대상으로 ‘2026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활동처’란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현재 김제시에는 총 65개의 기관이 등록돼 자원봉사자 수요 파악과 배치, 현장 관리 등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자원봉사 현장의 핵심인 관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실무 중심의 운영 지침과 효율적인 봉사자 관리 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 활용법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센터와 활동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재확인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는 각 기관 관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관리자들의 전문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돼 김제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 본격 선거운동 돌입

삼봉서 선거운동 발대식 개최 “이재명 정부와 성장동력 완성” AI·수소·방산 미래산업 공약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완주군수 후보가 2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유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완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완성하는 ‘일 잘하는 경제군수’가 되겠다”며 재선의 의지를 강조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삼봉신도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선다. 발대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성운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유희태 후보

유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민선 8기 성과를 완성하고 완주의 대도약을 이어갈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경제와 산업, 민생 회복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유 후보는 최근 공약 발표를 통해 에너지 지산지소 및 햇빛연금마을 조성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수소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 등을 제시하며 미래 산업 중심의 지역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 군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생활발전형 복지 확대, 청년·아동

돌봄 강화 등 민생 중심 공약도 함께 발표하며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챙기는 군정”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지난 4년간 완주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면 앞으로는 이를 완성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해야 할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예산과 국가사업을 적극 확보해 완주를 전북 경제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완주 발전을 이끌겠다”며 “군민 삶을 바꾸는 경제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희태 후보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삼례시장 사거리에서 출정식과 집중유세를 열고 본격적인 거리 선거운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중동발 위기 대응 민생안정 총력

유가·물가·교통 분야 관리 집중 기업 경영안정·유가보조 지원 확대

순창군이 중동 정세 변화에 대응해 물가와 기업,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은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판매 주유소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을 병행하며 에너지 절감과 유가 대응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바가지요금과 가격 동향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생활물가 관리도 지속 추진 중이다.

군은 생활물품 가격 조사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가격표시제 점검과 매점매석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자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업 현장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군은 관내 기업 현장을 방문해 경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통 분야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화물자동차 및 택시 유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대중교

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여 향후 유가보조금 관련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제 정세 변화가 장기화될 경우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군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국제 정세 변화가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 가능한 지원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대중교통비 환급 한시적 대폭 확대

9월까지 K-패스 추가 환급 적용 출퇴근 시차 이용 땀 최대 83.3%

남원시가 고유가 시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대중교통비(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민생대책의 일환인 이번 조치는 올해 4월부터 9월 이용분에 한해 적용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K-패스 전용 카드

발급 후 앱이나 누리집에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급 유형은 ‘기본형’과 ‘정액형’ 두 가지다. 기본형의 경우 월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하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오전 5:30~6:30 △오후 9:00~10:00 △오후 4:00~5:00 △오후 7:00~8:00) 이용 시 환급률이 30%p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50% △청년·어르신·2자녀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는다. /남원=김종원 기자

정액형은 월 이용 요금이 기준선(△일반 2만 5,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2만 1,000원 △3자녀·저소득층 1만 7,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환급해 준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혜택 확대로 고유가 상황 속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절감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종합대상 ‘영예’

ESG 종합부문 A+등급 달성 인구·복지·고용 분야 높은 평가

완주군이 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경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경영(Governance)의 영문 약자로,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관이 고려해야 할 핵심 3요소를 뜻한다. ‘2026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경제대상’은 한국이에스지(ESG)평가원, 이에스지(ESG)경제,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주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전국 지자체 지표를 산출해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원은 완주군이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 공공복지, 보육시설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종합대상 수



<사진=완주군>

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실제 완주군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0만 인구를 돌파하고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는 등 글로벌 수도도시 조성, 실물 인공지능(머지컬 AI) 산업 육성, 문화선도산단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한국이에스지(ESG)

평가원이 발표한 작년 환경·사회·투명(ESG)평가에서 사회분야 에스(S)등급(전국 1위)을 획득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고, 올해는 사회분야를 넘어 종합부문에서도 에이플러스(A+)등급을 달성하며 환경·사회·투명(ESG) 전 영역에 걸친 균형 잡힌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걸어서 만경강 건넌다” 징검다리 조성

2억8천만원 투입 조성 완료 봉동·용진 문화공간 보행 연결

완주군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고 있던 ‘봉동 다목적 문화광장’과 ‘용진 수변문화공원’이 친환경 징검다리로 연결돼 주민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됐다. 20일 완주군은 만경강 친수지구 양안의 보행 접근성을 높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만경강 징검다리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문화 공간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만경강 물줄기에 가로막혀 멀리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러한 불편 환경을 개선하고 만경강 일대의 생태·문화 환경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고자 이번 사업을 전개했다. 군은 총사업비 2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면밀한 공적 관

리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며 완성도를 높였고, 올해 5월 초 안전하게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하천 내 설치되는 시설물 인 만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전북지방환경청의 정식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우기 시 이용 자체 안내 및 안전 수칙을 담은 안전 안내판 등을 현장에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징검다리 개방으로 만경강 양안 문화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주민들에게 더 넓고 다채로운 산책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만경강의 새로운 친수 관광 명소를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징검다리 조성을 통해 만경강 친수지구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곤충산업 현장 농업기술 지원 강화

국립농업과학원과 맞춤형 지원 청년농가 대상 사육기술 컨설팅

남원시 신성장산업과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는 지난 19일 관내 곤충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의 전략 산업인 곤충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 지원은 갈색거저리(고소애, 밀웬)의 생산성 향상과 사육 시설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시와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들은 농가의 사육 시설을 살펴보고 사육 밀도 조절, 최적 먹이원 관리, 온·습도 조건 설정, 사육 위생 점검 등 고품질 곤충 생산

을 위한 핵심기술을 직접 지도하고 현장 작업에도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기술 지원은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에 첫발을 댄 2024년에 발맞춰 곤충산업을 시작한 청년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돼 그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해당 농가는 “거점 단지 인프라와 연계한 이번 기술 지도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는 큰 마중물이 되었다”라며, “남원의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사매면 일원에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전처리, 가공, 유통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전국적인 산업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어르신 1대1 맞춤 ‘디지털 손주단’ 출범

군, 시설공단현대차와 상생협약 임직원 경로당 찾아 디지털 교육

완주군이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손잡고 어르신들에게 1:1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디지털 손주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지난 19일 완주군은 완주군시설관리공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지역 사회 디지털 포용 확산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시민대학 완주캠퍼스 교육과 기업·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어르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사이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디지털 손주단’은 완주군에서 참여 기관 임직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이수한 단원들이 디지털 손주가 되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르신들과 1:1로 매칭되어 스마트폰 활용법, 카카오톡 사용, 사진 전송, 동영상 누리집(유튜브) 검색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친근하게 알려주는 지역 상생형 디지털 포용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은 시민대학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지원 및 사업 총괄을 맡고, 참여기관은 임직원 디지털 손주단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게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완주군>

순창군, 공습경보 발령 가정 민방위 훈련 진행

순창군은 지난 19일 안보의식 함양과 비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공습경보 발령 시 신속한 주민 대피와 비상시 행동요령 숙지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조정희 순창군수 권한대행과 필수요원을 제외한 순창군청 전 직원이 참여했으며, 민방위 공

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대피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군청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하대피소에서는 순창소방서 이경호 소방교의 주재로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요령에 대한 현장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조정희 순창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순창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소년들 지방선거 모의투표 본격 전개

완주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비유권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본격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가 중심 추진시설로 나서 ‘2026 청소년모의투표 전북운동본부’와 공동주관하며 온라인, 현장으로 병행 개최된다. 한국와이엔씨에이(YMCA)가 2017년부터 이어온 이 운동은 청소년 참정권 실현과 민주주의 심화의 기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참여는 정보누리(QR)코드로 선거인단 등록 후 가능하며 오프라인 사전투표소는 27일 고산고등학교 29일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6월 2일 삼우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본 투표일인 6월 3일 오후 6시부터는 실제 선거와 동일하게 개표가 진행된다.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 이어 완주군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직접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해 투표소 운영과 개표 등 선거 전반을 주도한다. 2년째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청소년은 “모의투표를 통해 청소년도 사회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어 뜻깊다”며 후보자들의 관심을 기대했다. 서유진 아동친화과장은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추진시설인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를 거점 삼아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지역 예술인 공유공간 ‘에가람 라운지’ 운영

남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전용 공유 공간인 ‘에가람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가람 방문자센터(동건길 72) 1층에 마련된 ‘에가람 라운지’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시는 이곳을 회의 및 간담회 장소로 활용해 지역 예술인 간의 창작·전시·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역 예술인으로, 이용료는 무료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내부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 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15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 금지면, 2026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여름철 안전교육

금지면(면장 양인환)은 지난 20일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폭염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여름철 운영 안내와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비롯해 작업 중 낙상사고 및 보행 시 교통사고 예방요령, 근무 중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지면 노인일자리사업은 1월부터 10월까지 총 10개월간 운영되며, 참여 어르신들은 쓰레기 및 잡초 제거, 관내 도로변과 화단 정비, 분리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금지면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양인환 금지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진안군, 고독사예방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성공적 운영

진안군 진안읍은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마음에 심는 씨앗'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음에 심는 씨앗'은 단순한 일회성 활동이 아닌,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관계의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를 담아 운영됐다.

4회 동안 감정나누기, 마음 돌봄 활동, 소통 프로그램, 공감과 관계 형성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참여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웃음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한 참여자는 첫 회기에 불안과 우울한 표정을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적극적인 자세와 밝은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임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삼계면지사협,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논의

임실군 삼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상범, 배세래)는 지난 19일 삼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6기 삼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전달과 특화사업 '사랑방방 영양빵방', '손애(愛)손잡고 꽃길만 걸어요'에 대한 일정 및 추진방법을 상의하고 마지막으로 사례관리대상자 가구 주택 청소 자원봉사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배세래 민간위원장은 "첫번째 특화사업인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도 위원들의 협조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며 "두번째 사업은 무엇보다 여성위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며 빵만들기 사업도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상범 삼계면장은 "농번기로 바쁘실텐데 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제55회 전국 소년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

진안군은 지난 19일 진안군체육회 대회 의실에서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격려식에는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을 비롯해 선수와 지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출전 각오를 다지고 선전을 기원했다.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진안군에서는 육상(2), 역도(1), 승마(2), 레슬링(7) 등 4개 종목에 12명의 초·중학생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각 종목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기량을 인정받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되고 있다.

이에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의 뜻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임실, 농가 지원 정책 추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29일까지 수매 1형 신청

무주군이 '2026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 1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자인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매·저장·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에 주는 것으로, 의 시행 방식은 수매 1형과 수매 2형, 농산물 순회 수거로 나뉜다.

이번에 지원받는 수매 1형 대상 품목은 사과(홍로, 후지, 시나노골드), 포도, 생선마, 흑미수박, 복분자 등 9

개 품목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매단가를 결정·수매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소외되는 희망자가 없도록 홍보는 물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접수

소돼지 등 7개 축종 대상

임실군이 축산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정정 임실'의 이미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축산업 허가를

받은 관내 농가다.

지정 기준은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다.

주요 평가 항목은 농장 주변 청소 및 조정 상태, 악취 발생 현황, 가축분뇨 적정 처리, 악취 저감 시설 가동, 깔짚 관리 등이며,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된 농가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순위 부여 및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완료

산악·안전사고 취약지역 위치 안내 정확도·속도 향상

임실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산악지역과 기타 안전사고 취약지역에서의 정확한 위치안내를 위해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6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 지역에서 조난이

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국도를 격자형으로 나누어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한글 2글자, 숫자 8자리)다. 소방, 경찰 등 구조기관과 위치를 공유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군은 고정밀 위성측량기(GNSS) 등을 활용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의 위치 좌표 정확성을 검

증하는 한편, 표지판의 훼손 상태, 탈색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된 국가지점번호판 6개소에 대해 설치기관에 통보해 정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산악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에서의 위치 안내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임실=한병열 기자

'2026 동질성전 무주 초대전' 개최

무주에서 만나는 현대 한국화 5월 15일 ~ 6월 28일 전시

'2026 동질성전 무주초대전'이 오는 6월 28일까지 무주군 안성면에 자리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중심의 미술계 현실에서 벗어나 지역 미술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91년 대전에서 시작된 '한국화 동질성전'의 취지를 잇는 특별 전시다.

지역 간, 작가 간의 예술적 연대에 초점을 맞춘 '2026 동질성전 무주 초대전'에는 김민석, 강구철, 김정욱, 김종기, 박노숙, 박은미, 변슬희, 심선영, 유호순, 윤광민, 이계길, 이민구, 이연옥, 이장원, 이종필, 정명희, 홍준기, 한아름, 홍옥기, 황현미 등 대전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작품은 '여정', '일선', '세월의 흔적' 등 작가들 저마다의 다양한 시각과 기법



을 통해 완성된 한국화 20점이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나운재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대표는 "동질성전은 도시 중심의 문화예술 환경에서 소외된 지역에 한국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번 전시가 무주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한국화의 깊

은 매력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 동질성전 무주초대전'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 기간 중 휴관일 없이 상시 운영(관람료 무료)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 옥정호 붕어섬, 휴장없이 특별운영

5월 26일 화요일 정상개방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원이 만개한 작약꽃과 붉은 꽃양귀비로 화려하게 물들며 전국적인 붐몰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최근 관광객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봄꽃 절정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6일 정기 휴장일에도 붕어섬 생태공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과 운암면 운종리 일대에는 5월 봄의 절정을 알리는 작약과 꽃양귀비가 만개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1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주말마다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사진=임실군>

다 일평균 7~8천여 명이 찾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봄꽃 절정시기를 맞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초 정기 휴장

일인 5월 26일 화요일에도 휴장없이 정상 운영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옥정호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카톡 친구 이벤트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시 추천 통해 경품 제공

장수군은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가(위원장 김흥기)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간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공연 일정, 프로그램 운영 시간, 교통 및 편의시설 안내 등 축제 관련 소식을 군민 및 축제 방문객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 추가 검색창에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검색한 뒤 친구 추가를 하거나, 홍보물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기간 내 채널 친구 추가를 완료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이벤트 종료 후 추



첨을 통해 커피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번 카카오톡채널 운영을 통해 축제 현장 안내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관광, 농특산물 홍보 등 장수군 축제와 지역자원을 알리는 지속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공명선거 추진 총력

이경영 권한대행

공명선거 상황반, 투표소 점검

진안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20일 진안군 공명선거 상황반과 성수면 투표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과 선거종립 준수 대책 등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진안군은 이번 지방선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행정지원과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공명선거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반은 행정지원과 행정팀 직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선거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선거 추진상황

종합관리, 선거인명부 작성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과 선거중립 의무를 지속 안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정 선거사무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장계면지사협, 복지사업 운영 방향 모색

고독사자살예방 활동 연계 강화

장수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조장호 장계면장과 임재성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반기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하반기 복지사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 까지 추진한 행복나눔 제빵봉사, 효도

관광 나들이 행사, 아동 신체활동 증진 사업, 상반기 '고독제로 프로젝트', 마음가까이 효(孝)박스 전달 사업 등의 추진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홀클리닝 사업의 운영 방향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 활동 추진과 관련해 자살 고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산사태 경보 주민 사전대피 훈련 실시

기관 합동 실전형 대피훈련

진안군은 20일 진안읍 평촌마을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 산사태 예비경보 발령 상황 가정 아래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피해지역의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비경보 단계에서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주민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산림부서의 산사태 예비경보 발령과 함께 자율방재단 및 산림재난 대응단이 현장에 투입되며 시작했다.

이후 상황관단회의를 통해 해당 마을 주민의 사전 대피가 결정됐으며, 관계기관은 실제 재난 상황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산림과는 위험 사면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전문 판단 정보를 제

공했으며, 안전재난과는 상황판단회의를 주관하고 재난안전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 상황을 총괄 관리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장과 대피조력자의 안내에 따라 노약자를 우선으로 지정 대피소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마을 진입로 통제와 교통 정리를, 소방은 거동 불편자 및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맡아 기관별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모의훈련에 그치지 않고 경보 발령부터 상황판단회의, 재난문자 발송, 주민 대피, 현장 통제, 응급 구조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은 집중호우 발생 시 토사 유출과 지반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위험 상황 발생 이전 단계부터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서군산 로타리클럽, 취약계층 아동 3가구 공부방 조성

군산시는 지난 18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군산 로타리클럽(회장 고찬식)의 후원과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로 추진한 '취약계층 아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성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위생과 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방과 위생 공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군산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바쁜 생업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재능기부 봉사를 이어갔다.

이번 공사를 통해 노후된 다세대주택의 화장실이 깨끗하게 정비됐으며, 아이방의 도배와 장판도 전면 교체됐다. 아울러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책상과 가구를 갖춘 맞춤형 공부방도 조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다움' 청소년, 우수 청소년 표창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익산시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에서 센터 소속 정다움 청소년이 우수 청소년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청소년 상담사업 활성화와 또래 관계 향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 조성과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정다움 청소년은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며 학업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책임감과 자기주도성을 키우며 또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임근석 기자

익산 마동協, 밥차 후원업체 '(주)건강드림'에 감사

(주)건강드림 감사패 전달 2023년부터 매회 후원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철순·최희정)는 20일 '사랑의 밥차' 운영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주)건강드림(대표 주희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마동 사랑의 밥차는 2023년 시작된 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매 회 총 300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주)건강드림은 2023년부터 '사랑의 밥차' 운영 때마다 밥과 국, 반찬 등 식사를 후원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 왔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주)건강드림의 꾸준한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랑의 밥차 지원에 헌신한 (주)건강드림 장지훈 이사에게도 감사장이 전달됐다.

장지훈 이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깨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김제신용협동조합,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

외식상품권 전달

김제시는 김제신용협동조합이 지난 13일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교육(금융교육)을 진행하고,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올바른 소비습관과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 며 용돈관리 금융사기 예방 저축

과 소비의 균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제신용협동조합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외식상품권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김제신용협동조합 백강석 이사는 "검정고시에 도전해 값진 결실을 이뤄낸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9명 전원 합격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은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평선학당과 연계해 운영한 검정고시 대비반을 통해 이뤄진 결과로 청소년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센터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7주간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며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대면수업과 학습지원을 진행했다. 학습 공백으로 오랜 시간 공부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들도 교사들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이어가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서로 응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 평생학습 도배 교육생들, 재능기부

부안군 청우평생학습관은 도배 실무과정 교육생들이 지난 19일 부안읍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봉사활동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중 도배실무과정 3기 교육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교육과정에서 익힌 실무 기술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마련됐다. 현장에는 강사를 비롯해 지역단체와 평생교육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서로 힘을 보태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봉사는 평생교육이 단순한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이 다시 나눔으로 이어져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은봉기 기자



고창 해리면지사협,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고창군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규, 홍정목)는 지난 19일 지역 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영양만점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이웃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직접 포장하여 대상 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반찬을 전달하며 생활 환경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이웃사랑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해리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 광희수제누룽지, 소외계층 위해 누룽지 80개 기탁

광희수제누룽지(대표 이경란)가 지난 1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600g짜리 누룽지 80개를 정읍시 사회복지과에 전달하며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이번 나눔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됐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기탁받은 물품은 공유냉장고를 거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빠짐없이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광희수제누룽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매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누룽지를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우리 함께 해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회용컵, 빨대 no!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비닐봉투no!장바구니ok!



세탁비닐no!



일회용 수저, 포크 no!

〈一事一言〉



지식만 비대하고 체력은 고갈된 전북의 '종이 인형' 고교생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교육의 자화상이 지식만 억지로 채워 넣고 몸은 병들어가는 기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20일자 본지 5면에 실린 '전북 고교생 저체력 비상' 기사는 대한민국 교육, 특히 전북 교육이 마주한 가장 부끄럽고도 치명적인 민낯을 보여준다. 매년 실시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전북 도내 고교생 5-6명 중 1명 꼴인 15~18%가 최하위 등급인 4-5등급(저체력 군)에 속한다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위기 신호다. 일상적인 운동조차 힘겨워하는 '체력 결손' 상태의 아이들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서글픔과 함께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 같은 기초체력의 붕괴는 삼급 학교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초등학교 시절 한 자릿수에 머물던 저체력 비율이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견잡을 수 없이 치솟는 현상은 현행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고스란히 방증한다.

주범은 단연 '입시 위주의 교육'과 '체육 시간의 형식화'다. 대입 경쟁이라는 거대한 압박 속에 내몰린 일선 고등학교들은 국·영·수 중심의 교과 수업에만 목을 매고 있으며, 체육 활동은 사치나 시간 낭비 쪽으로 치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체육 시간이 자습이나 타 교과 보충 수업으로 대체되는 오랜 구태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숨을 쉬고 땀을 흘릴 권리 자체가 철저히 박탈당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거부(96.2%)' 사태와도 일맥상통한다. 학교 밖 야외 활동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설 자리를 잃고 영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소풍과 수학여행은 민원 무서워 취소되고, 학교 안에서 하는 체육 수업은 임시 무서워 자습으로 대체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좁은 책상 앞에 갇혀 모니터와 책장만 들여다보며, 겉모습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빈 '종이 인형'처럼 약해지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방조와 부실한 사후 관리다. PAPS 제도는 아이들의 체력을 단순히 줄 세우기 위해 측정하는 검사도 아니다. 저체력 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건강체력교실' 등의 사후 관리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장의 실태는 어떤가. 예산과 인력 부족, 일선 학교의 무관심을 핑계로 이 프로그램들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일회성 검사로 서류만 채우고 정작 아이들의 시들어가는 몸을 방치하는 교육 행정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체력이 곧 국력이자 모든 지적 활동의 기초라는 백년전통의 명제는 전북 교육청의 책상 위에서 완전히 먼지 쌓인 옛말이 되어버렸다.

이제 전북 교육은 거대한 리더십 교체기를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차기 전북 교육감은 이 무너진 교실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야

한다. 선거철마다 입으로만 '미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을 외치는 화려한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몸이 무너지면 지식도, 미래도, 꿈도 모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차기 교육감의 제1과제는 무너진 학교 체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건강 주권 회복이어야 한다. 고교로 체육 시간을 과행 운영하거나 타 교과로 전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감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학교 현장의 인식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체육 시간의 전면적 보장'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스포츠 클럽 활동을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해진 건강체력교실의 예산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실천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교사들이 민원 걱정 없이 체육 활동과 야외 체험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를 만들어주는 행정적 결단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지식만 비대하고 체력은 고갈된 청소년들에게 전북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당당하게 땀 흘리며 뛰놀고, 건강한 신체 위에서 건전한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5-6명 중 1명이 저체력이라는 이 슬픈 통계와 아이들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6월 3일, 전북의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말뿐인 미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무너진 몸과 숨구멍을 먼저 열어줄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선택할 것이다.

사설

생명을 살리는 일,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가 자살 예방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정비하며, 상담 지원망을 강화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특히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전북 현실에서 자살 예방은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 확대' 자체가 아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느냐다. 상담 인력은 충분하냐, 읍면 단위까지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위기군을 발견한 뒤 정신과 치료와 지속 관리로 제대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여주기식 캠페인과 일회성 홍보만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없다.

특히 농촌 지역과 독거노인 밀집 지역은 정신 건강 사각지대가 심각하다.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모른 채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을 받아도 이후 관리 체계가 끊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자살 예방은 포스터 몇 장과 구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보건·복지·의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가능한 구조적 과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적 발표가 아니라 성과 검증이다. 몇 명을 교육했는지 아니라 실제 몇 명의 위기군을 발굴했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냉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역시 단순 사업 소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장 접근성과 사후 관리 체계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한다.

독자투고

차량 내 절도(차털이), 우연이 아닌 우리의 '방심'을 노린다



늦은 밤, 퇴근을 마친 심씨는 집 앞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차량 문은 잠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지갑과 널브러진 차량 내부였다. 법인은 단지 잠기지 않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는 '단 몇 초의 행동'이든 충분했다.

우리가 흔히 '차털이'라고 가볍게 부르는 차량 내 절도는 결코 대수롭지 않게 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이는 대부분 운전자의 문을 잠기지 않는 습관, 차량 내부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눈에 띄게 두는 행동, 그리고 '살마 내 차를 털겠어?'라는 작은 방심 속에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문이 열린 차에서 물건을 꺼내는 행위를 단순한 잠범으로 치부하곤 하나 범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의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만약 범행이 2인 이상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견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중죄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 형법 제332조

(상습범) 조항에 의거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차량 내 절도는 주택가와 아파트 주차장, 심지어 CCTV가 촘촘히 설치된 곳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최근의 범행 트렌드는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큰 소음을 내기보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뒤늦게 출근길이 되어서야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곤 한다.

아무리 순찰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가장 확실한 방어벽은 운전자의 예방이다. 차량 내 절도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

첫째, 하차 시 '문 잠금' 직접 확인: 스마트키를 띠고 그냥 떨어지기보다, 사이드미러가 정상적으로 접혔는지 또는 문손잡이를 직접 당겨 잠금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차량 내 귀중품 방치 금지: 현금,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 범죄자의 표적이 될 만한 물건은 단 몇 분이라도 눈에 띄게 두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안전한 주차 환경 선택: 늦은 밤 주차 시에는 가급적 CCTV 식별이 잘 되고 조명이 밝은 장소, 혹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을 선택해야 범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범죄는 거창한 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빈틈에서 시작한다.

전주특진경찰서 형사과
경장 심형조

오늘의시

우리 앞이 모두 길이다 / 이성부

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야 할 곳이 어디쯤인지
벽간 가슴들 열어
당도해야 할 먼 그곳이
어디쯤인지 잘 보이는 길이다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가로막는 바람과 비바람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던 우리
가도 가도 끝없는 가시덤불 헤치며

찢겨지고 피흘렸던 우리
이리저리 헤매다가 떠돌다가
우리 힘으로 다시 찾은 우리
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는 길 힘겨워
우리 허파 헉헉거리도
가쁜 숨 몰아쉬며
잠시 쳐다보는 우리 하늘
서럽도록 푸른 자유

마음이 먼저 날아가서 산 넘어 축지법!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큰사랑 만나러 가는 길이다
더 어려운 바위
벼랑과 비바람 맞을지라도
더 안 보이는 안개에 물릴지라도
우리가 어찌 우리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우리 앞이 모두 길인 것을

시인 약력 : 1942년 광주광역시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한국일보사 기자로 입사해 1997년 '뿌리깊은 나무'로 옮겨 편집주간으로 일했다. 전남일보 신춘문예 시 '바람'과 1961년 현대문학에 시 '소모의 밤' '백주'로 2회 추천받았으며, 1962년 '열차'가 추천돼 등단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시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장영지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문이 살아야 지역소식이 살아납니다!
지금 광고로 지역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히세요!

광고문의 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3

내 집 마련 걱정없는 익산! 전국 최고 '주거 사다리'

주거정책 성과 인정 우수 지자체 선정 신규 물량 대거 공급으로 인구 유출 막아

익산시가 낮은 아파트를 이유로 지역을 떠나던 시민의 발길을 돌려세우며, 대한민국에서 '서민 주거 정책을 가장 잘하는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익산시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선 6기부터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익산시 주거 정책의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영철 익산시 건설국장은 "익산시 주거 정책의 핵심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누구나 주거 소외 없이 월세부터 임대, 전세, 내 집 마련까지 각자의 형편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사다리'를 완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10년 전 약속한 풀었다"...노후 주택 탈출 수요 불잡아

2016년까지만 해도 익산시는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전무해 20년이 넘는 노후 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이 인근 전주나 군산 등지로 대거 유출되기도 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와 대형 브랜드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며 정주 여건을 획기

적으로 개선했다.

실제 2016년 한 해 동안 64호에 머무르던 익산 지역 공동주택 공급량은 점차 늘어 △2024년 4,990호 △2025년 4,592호로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유일 '분양가 차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저렴한 분양가를 유도하기도 했다.

동시에 전북 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저렴하게 임대로 살다가 향후 내 집으로 분양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불렀다.

◆ 주택 가격 '37% 안정적 상승'...자산 가치와 주거 안정의 황금 균형

이날 브리핑에서는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과거 저금리 특수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과열되기도 했으나, 시의 적절한 공급과 대책을 통해 현재는 매우 건강한 연착륙을 이뤄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익산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현시장 취임초인 2016년 대비 약 37%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의 정당한 재산 가치는 탄탄하게 지켜내면서도, 새로운 실수요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낮아진 가장 이상적인 '안정적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주 여건 개선과 가격 안정화 덕분에, 그동안 유출되던 30대 젊은 층의 흐름이 급변했다. 30대 청년 인구는 2022년 919명 감소에서, 2025년 691명 증가로 대

반전을 이뤄냈다.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 물량도 단 1개 단지에 불과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건강하게 회복됐다.

◆ '원금만 갠고 사세요'...국토부 장관 표창 빛나는 독보적 이자 지원

정부도 익산시의 차별화된 서민 주거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시는 2024년 12월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익산시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과 집수리 사업, 주거급여,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체계적인 주거 사다리를 통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다. 디딤돌 대출, 보증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이자를 시가 파격적으로 현금 지원해 준다.

시민들 사이에서 "익산에서는 사실상 대출 원금만 갠고 사세요"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공급 절벽 선제 대응"...임대주택 대량 공급으로 미래 가격 폭등 차단

시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 절벽'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향후 예견되는 주택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과 인구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소라지구 등 중심지에 임대주택 3,639세대를 대량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 공급이 감소하는 시기에 공공 중심

집 걱정 없는 익산, 전국 최고 수준의 익산형 주거 사다리

STEP 1. 월세 지원
정부형 익산형 청년 임대 지원사업 통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을 지원합니다.

STEP 2. 임대 지원
키스복합, 신혼부부,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보증금을 최대 5년간 원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합니다.

STEP 3. 전세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합니다.

STEP 4. 내 집 마련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월 최대 60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우수 지자체 선정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익산시 주거대전환 1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

자산가치와 주거 안정의 황금균형 2018년 대비 2024년 공공주택 평균 매매가격 안정화 (2022년 과열기 최대 1.71억원까지 상승)	인구 유출에서 순유입으로의 대전환 인구 유출 -431명 (2020년 기준) 순유입 전환 +232명 (2024년 기준)	미래 공급 절벽 대비 3,639세대 선제적 공급
대형 브랜드 아파트 공급 숲세권 환경 조성으로 서민 주거 만족도 극대화	점진적인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며 정착하고 싶은 익산으로 변화	공공임대주택 확보로 향후 집값 폭등 방지

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든든한 방아막을 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2024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단지 36개소를 지정해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등 관련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영철 건설국장은 "익산의 주거 정책은

집 걱정 때문에 고향을 떠나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시민이 없도록 주거 사다리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정당한 재산 가치를 누리며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 안식 도시 익산'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